

APPLE 지역복지센터 태국과 파키스탄에 설립추진

| 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사업부

◎ 센터 설립 배경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교육자 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APPLE(Asia-Pacific Happy Children & Family Echo)'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7개 국가의 발의를 거쳐 결의되었다.

APPLE 프로젝트는 빈곤, 학대, 재난으로부터 아태지역의 취약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PPLE 프로젝트의 세 가지 주요 사업방향은 연구센터 설립, 구호기금 마련, 사회복지군 창설이다.

◎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아·태 지역 사회복지센터 설립

사회복지군 창설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파키스탄 지진피해지역에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89명으로 구성된 사회복지군(봉사단)을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펼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파견활동을 시작으로 파키스탄에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정은 APPLE사업단장(파키스탄·태국 지역)을 이슬라마바드에 파견하여 센터 설립을 추진하였다.

김정은 단장은 지난 4월 14일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으며, 이슬라마바드에서 사회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였다.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여당인 Pakistan Muslim League의 Shujaat

Hussain Chaudhry 당수와 여성개발부의 Bakhtiar Nilofar 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하였으며, 특히 양국 간 사회복지정보교류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아태지역 사회복지정보교류

전진기지로의 역할도

파키스탄과 태국에 설립되는 APPLE센터는 지역조사 및 주민육구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할 예정이며, 정부 및 민간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APPLE센터는 아태지역 사회복지정보교류의 전진기로서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향후 발전 방향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파키스탄에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의 사회복지를 아태지역에 전파하고, 아태지역 정보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올해 실행되는 'APPLE 프로젝트 실행 기반 구축 및 정보교류사업'을 통해 더욱 확장되어질 전망이다. 올 6월에는 APPLE 프로젝트를 발의한 7개 국가의 사회복지 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서울 워크숍이 개최되며, 협회 내에 아태지역의 사회복지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APPLE 서울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APPLE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파트너쉽

과 상호동맹,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고 한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Mini Interview

센터설립을 위한 뜻을 울려다

지난 4월 14일 태국과 파키스탄에 APPLE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태국·파키스탄APPLE사업단 김정은 단장을 인천 공항에서 만났다.



김정은
태국·파키스탄APPLE사업단장

새로운 시작이 주는 긴장감과 설레임의 표정이 역력한 김정은 소장은 "불모지이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두렵고 걱정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정은 관장은 5월 초 입국하기 전까지 태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며 센터 사무실을 알아보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 또 현지의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관계 정부기관을 만나 사업 협조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한편 김정은 단장은 태국·파키스탄APPLE사업단장으로 APPLE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조사에서부터 센터 설립, 사업진행에 이르기까지 태국·파키스탄APPLE사업을 총괄하게 된다.